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9. 3.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철도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현정, 사무관 서혜린, 주무관 유현서 • ☎ (044) 201-3940, 4643, 4645	
보 도 일 시	2020. 9. 4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4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, 한국 고속철도 기술 터키시장 진출 총력

- 3일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고위급 화상 수주외교 추진
 - 철도협력 업무협약(MOU) 개정 제안 등 고속철도 협력기반 마련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9월 3일(목)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통해, 우리 기업의 터키시장 고속차량 수출 및 할칼리~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고, 철도협력 업무협약(MOU) 개정 등 양국 협력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
- 터키는 2023년 공화국 설립 100주년*을 맞이하여 대규모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, 특히 터키 교통인프라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할칼리~게브제 고속철도망(143km, 약5조 원) 구축과 94편성에 달하는 대규모 고속차량 구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.
- * (Vision2023) 고속철도 1,213km → 12,915km, 일반철도 11,319km → 12,115km 확충 목표
- 이에, 국토부(대표: 철도국장)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터키 고속철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철도기업 우수성을 홍보하고 정부 간 협력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터키 교통인프라부(대표: 교통차관)과 화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.
-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한국이 단기간에 고속철도 기술 자립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민자 철도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며, 한국이

터키 철도사업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.

-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를 이끈 주관 기관으로서 이번 고속차량 구매사업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하여 터키 철도기술 자립화를 지원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으며,
-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유럽과 아시아 연결 고속철도망의 미연결구간으로 남아있는 할칼리~게브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민자 철도사업 경험을 터키 측에 공유하고 본 노선에 적용 가능한 민자사업 모델을 제안하였다.

□ 한편, 양국은 철도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체결된 「한-터키 철도협력 양해각서(MOU)」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, MOU 개정도 논의하였다.

- 양국은 MOU 협력분야에 민관협력사업(PPP) 개발, 고속차량 기술 이전 및 공동생산, 철도안전 협력 등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기반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“이번 한-터 철도당국 간 화상회의는 코로나-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계기”라고 평가하며,

- “향후 터키 철도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양국이 철도분야에서 성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철도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정책과 서혜린 사무관(☎ 044-201-464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